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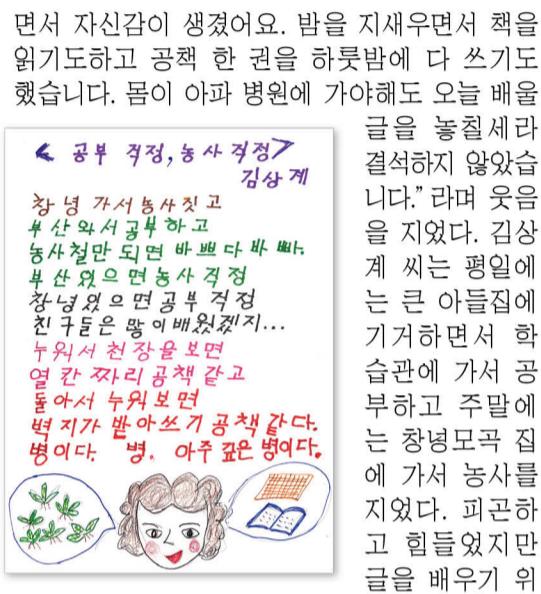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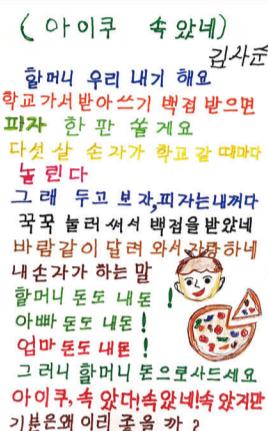
##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

### 사하구 평생학습관 성인문해 학습자 시화전 수상

사하구 평생학습관 석봉반은 수상의 기쁨이 넘쳤다.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라는 주제로 열린 성인문해 학습자 시화전에서 김사순(76세·당리동)씨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장상을 받았고 김상계(75세·대신동)씨는 부산 시장상을 받았다. 김사순 씨는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는데 한글교실을 꾸준히 수강하면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5세부터 17년 동안 미용일을 했으나 글을 몰라 미용기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었다. 김상계 씨 역시 배워서 직업을 갖고 싶었지만 농사일이 급급해 공부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글을 아는 사람 옆에 가면 기가 죽어 할 말도 제대로 못했다.

김사순 씨와 김상계 씨는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글을 몰라도 남편이 지팡이 역할을 해 주었다. 하지만 사별 후 생활의 불편함을 더 많이 느꼈고, 답답함에 배우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때 지인으로부터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소개 받아 한글공부를 시작했다.

김사순 씨는 “글을 몰라 몸과 마음이 오그라들어 남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글을 익히



해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한글을 배우고부터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고 자신감이 생기니 성격도 밝아졌어요.” 라며 밝게 웃었다

황정옥 강사는 두 분 수상자의 학습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면서 그동안 고생 한 것만큼 공부를 했다면 큰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상자들은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며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할 거라는 포부도 밝혔다. 그리고 더 열심히 배워서 황정옥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것이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김필분 평생학습 구민기자  
shjbun@naver.com

## “내가 키운 채소를 식탁에 올리고 싶어요”

### 사하구 도시농부 베란다 텃밭가꾸기 인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빌딩 옥상에 푸른 식물이 숲을 이루고 내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 쌈채소가 자라며 오이, 가지, 방울토마토 등이 열린다면 어떨까.

사하구는 이런 구민들의 꾸준한 바람에 동참하여 식물재배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습을 돋기 위해 도시농부 베란다 텃밭가꾸기 강좌를 개설했다. 첫 강의가 있었던 2일 새동아직업전문학교 강의실은 만석이었다. 정원 20명을 훌쩍 넘겨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수강생은 은퇴 후 취미생활을 하려는 사람, 귀농을 계획하는 사람, 베란다에 먹거리를 직접 가꾸고 싶은 사람 등으로 강의 시간 내내 볼입하는 모습이었다. 지방에 땅이 있어 시간이 날 때마다 감나무와 대추나무를 10년째 키우고 있다는 김영찬(47세·신평1동) 씨는 “다른 식물재배에 도전해보려고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수강생은 “내가 직접 키운 상추를 식탁에 올리고 싶다.”고 활짝 웃었다.

윤철호 강사는 전국 최초로 원예치료를 시작했는데 “식물을 키우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 같다.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스스로 행복해진다.”고 식물재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동 텃밭을 하면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강의는 텃밭가꾸기 기초이론에서 식물 재배방법, 병충해 예방과 퇴치법, 수경재배 등 실제 재배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10회 진행된다.

베란다 텃밭가꾸기는 내가 직접 가꾼 채소와 열매를 식탁에 올리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쓰레기로 버려지는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식물재배에 관심이 있다면 도시환경을 밝고 아름답게 하는 텃밭가꾸기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8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 같이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 축제 곳곳에서 열려



축제의 계절 가을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평생학습 축제도 곳곳에서 열린다. 먼저 사하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10월 27일 다대포 중앙광장에서 연다. 학습자들은 한 해 동안 정성들여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동아리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오후 2시부터는 평생학습 플래시몹 홍보단 외 여러 동아리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회화나무 빨래터를 연상시키는 핸드벨 공연과 마술공연, ‘남도민요’ 창극 등 볼거리가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다대포의 이야기를 담은 ‘다대진성 이야기’와 올해 부산시민연극제 수상작인 ‘규중칠우쟁론기’ 단막극도 눈여겨 볼만하다. 다대포 해변공원에서는 알뜰장터도 마련되어 있어 축제가 더욱 풍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마다 주민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았던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스트링아트로 열쇠고리 만들기, 나만의 에코 텁블러 만들기, 가죽공예 패션 팔찌 만들기, 향기나는 카네이션 만들기 등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올해는 전국적으로 열리는 평생학습 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펼쳐진다.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박람회는 벡스코에서 하는 주요행사와 부산의 특색있는 마을에서 이뤄질 외부박람회가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벡스코에서 진행하는 기념행사, 전시마당, 컨퍼런스, 부대행사 그리고 외부박람회가 있다. 첫 박람회에는 199개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300개가 넘는 기관이 접수했다. 해마다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평생학습이 더욱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준비된 외부박람회는 벡스코 제1전시장을 출발해 감천문화마을→아미동 비석마을→보수동 책방골목→동구 이바구길→영화의 전당→벡스코 제1전시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이뤄진다. 박람회 홈페이지(<http://www.klle.kr/>)에서 투어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체험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가 우선이지만 당일 참석자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각 코스별로 마을의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 제86회 사하아카데미 개최

[일 시] 2018. 11. 21.(수) 15:00~17:00

[장 소] 사하구청 본관 4층 대강당

[주 제] 돈, 잘 쓰고 잘 모으고 잘 불리는 법

[강 사] 권도형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





사하구는 2018년 사하구 평생학습도시 사하다움 워크숍을 열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하구 평생학습관계자와 주민강사들이 참여했다. 낙동초등학교 앞에서 출발한 버스는 동양의 나폴리 통영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는 자기소개와 친목을 다지는 인사가 있었다. 달리던 버스는 거가대교를 지나 통영 RCE 센터에 도착했다. 통영시는 2005년 국내 첫 번째 RCE 도시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통영RCE센터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을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센터이다. 지속가능이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을 이언지 교육팀장의 강의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곳에서 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다. 센터 내 여러 곳에서 외국인들의 작품과 주민들의 참여도를 엿볼 수 있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만들어 낸 작품들이 퍽 인상적이었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활동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을 통한 라이프스

## 다함께 움트는 시간 사하구 평생학습 워크숍을 다녀와서

타일 디자인하기’라는 주제로 정은희 경남대학교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평생학습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배워서 공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정 교수는 ‘멘티미터’라는 휴대폰 앱을 소개해 주었고, 참가자들은 이 앱을 열어 ‘나에게 평생학습이란?’라는 물음에 각자의 대답을 적어 넣었다. 참가자들이 쓴 문장들이 슬라이드에 실시간으로 떴고, 이것을 바탕으로 빅데이터가 바로 만들 어졌다. ‘삶의 질’, ‘행복’, ‘나’라는 단어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의자와 다수의 참가자 간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유용한 데이터로 나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것을 배운 기쁨으로 눈빛

이 빛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교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공유 비전을 만들어 내 주위부터 행복하게 만들자고 했다.

두 번째는 ‘나와 세상의 사이 잊기’라는 주제로 전하영 (삶과 삶 모두의 평생학습 대표) 강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모둠 활동으로 ‘가을’과 어울리는 단어를 자유롭게 생각해 내었다. 강사는 ‘가을’ 대신에 ‘사하구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가을 이미지의 단어들과 결합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인기투표를 한 결과, ‘사하구의 평생학습은 첫 사랑의 설렘으로 시작해서 낭만이 깃든 결실을 맺는 곳이다’라는 문장이 뽑혔다. 참가자들은 여러 모둠이 만들어 낸 문장들을 보며, 사하구 평생학습이 가지는 의

미를 가슴에 담는 듯 미소를 지었다. 이 강의 역시 작은 활동 속에서도 공동체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평소에 얼굴만 스치던 참가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어울리며 친목을 다졌다. 끼가 많은 주민강사들의 장기자랑은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서로가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어 어울리며 하나 되는 느낌도 나누었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피랑, 서피랑을 꼭 걷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렇지만 이번 워크숍 참가로 동아리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평소 바쁘게 프로그램만 진행하다가 밖에 나와서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의 상황도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다. 현장으로 돌아와서도 평생학습을 할 때 좋은 에너지로 작용할 것 같았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 마을 환경 우리가 지켜요 신평, 장림, 괴정 평생학습빌리지에서 환경 강좌 열려



“아아~ 너무 심각하네요. 옛날에 우리는 석면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슬레이트 지붕에다 삼겹살 구우면 기름이 잘 빠져서 더 좋다며 맛있게 먹었어요.” 라며 신평 동매 누리 행복센터 2층 강의실에서 탄식이 새어 나온다. 8월 28일부터 시작한 ‘환경문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평생학습빌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이야기다. 쓰레기문제와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강의를 듣고 환경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졌다. 석면이 들어간 학교 천정 마감재 제거 작업 영상은 모두가 숨죽이며 봤다. 수업을 들은 뒤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한다. 천연비누 만들기, 텁블러 꾸미기, 폐플라스틱 컵으로 다육이화분 만들기가 그것이다.

수강생 유규남(70세·신평동)씨는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샴푸나 주방세제를 한 방울이라도 덜 쓰려고 한다. 천연제품 만들기 수업도 재미있다며 결석 한 번 없이 수업에 열심이다. 정경이(60세·신평동)씨는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특히 석면이 이렇게 까지 위험한지 몰랐다”며 천연비누나 텁블러 만들기도 좋지만 미세 플라스틱이나 석면 문제에 관한 강의가 좋았다고 한다.

총 8차시로 진행된 ‘환경문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교육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환경을 개선하는데 나선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수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 인간이 만든 최고의 선물 – 책

## 학부모와 함께하는 북앤토크

사하구는 지난 9월 19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북앤토크’를 열었다. 하반기 학부모 강의로 아이들 독서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었다. 강사로 나선 문경애 행복나무독서치료연구소장은 책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읽혀지기 위해 부모가 갖추어야 하는 생각과 방법을 쉽게 설명했다. 강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문경애 강사는 먼저 독서의 힘을 말했다. 스마트 폰으로 책을 읽는 것과 종이에 쓰여진 책을 읽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종이로 된 책을 읽으면 글 이해도의 효과가 40% 이상 높다고 했다. 또 독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고라고 설명했다.

‘큰소리로 읽기’는 산책보다 스트레스를 푸는 데 효과가 있다고 했다. 특히 부모가 책을 주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줘 비행에 덜 노출되며 또한 사회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독서를 한 아이들이 확장성, 유창성, 창의성, 유동성이 높다고 했다.

문경애 강사는 아이들의 책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험 치듯이 질문을 던져 대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춘 아이의 책읽기는 오히려 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든다. 많은 책을 읽히는 것보다 아이의 수준과 상황

에 맞게 읽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연령별 독서나 학력별 독서에 억매이는 것도 주의 하라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독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독서를 강요한다면 독서문제아가 될 수도 있다. 교사 또는 부모가 재미없는 책, 독서 노트와 독서 감상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나친 독후 활동은 자체하고, 아이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읽어주는 것이 더 낫다. 빨리 빨리 읽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많은 양의 책읽기도 좋지 않다. 만약 읽기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책을 원하는 만큼 읽어 주어야 하고, 언제든 질문하게 한다.

아이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책,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마음과 몰입하는 삶의 모습을 그린 책이 좋다. 개인과 집단 간에 생기는 사회적 관계, 나누고 베푸는 것과 용서하는 내용이 담긴 책도 권할 만하다.

이번 학부모 강의는 독서 지도에 도움이 될 만 했다. 책이 정말 인간이 만든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 학부모부터 독서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 더 필요하다.

**김미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 아름다운 그대

# 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사람

## 리센 동아리회장 강은정 강사를 만나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이 있다. 푸근한 인상을 가진 강은정(40세, 하단동) 씨이다. 그녀의 손으로 만든 다양한 작품은 행사 때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강은정 씨가 평생학습을 처음 만난 것은 2012년 사하구 평생학습관의 선물포장 강좌였다. 수업을 듣고 선물포장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시 1급 자격증을 취득해 '리센' 동아리를 결성했다. 담당 강사의 도서관 수업 권유로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에서 리본과 선물포장 수업을 진행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아이들의 생일선물 포장, 브로치 만들기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은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좋아 개인지도도 이어나갔다.

강은정 씨는 선물포장 외에도 천연화장품, 가죽공예, 목공예, 플라워아트, 3D펜 등 다양한 평생교육을 받았다. 그 결과 선물포장기능사, 과학지도사,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진로직업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사하구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의 서기를 맡고 리센, 모던아



트, 세계시민교육 동아리로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초 사하구 평생학습관 동아리 회원들과 교육협동조합을 결성해 초등학교 캠프와 중학교 IT진로체험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홍보체험관 부스, 성과공유회, 여름특강 재능기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수업, 시청 아고라 다과준비 플레이팅까지 사하구를 넘어 부산 전역으로

활동한다.

강은정 씨의 배움은 나눔으로 이어졌다. 5년간 매월 1회씩 봉사를 하던 센터에서는 치매노인들이 그녀의 수업이 있는 날에는 아침 일찍 준비를 하며 기다리셨다고 한다. 아이들에게는 라이스플레이, 천연제품, 페이퍼아트, 퀄리 등을 가르쳤다.

아파트 상가 내에 마련한 아토공방은

동네방네학습관 2호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실크스크린 강좌도 열리고 어른들을 위한 반찬수업도 진행하였다. 반찬을 만들며 판매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함께 하기 위해 무료 나눔도 한다. 오후시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공방에서 라이스플레이, 천연비누 만들기를 나눔으로 하며 아이들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표정에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아이들은 공방 앞의 쓰레기를 스스로 치워주고 어두운 시간에는 함께 공방 문을 나서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입구에서부터 향기가 가득한 공방은 누구나에게 열린 공간임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강은정 씨는 다양한 봉사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배움을 통해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 나가는 그녀의 활동에 응원을 보낸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 동아대와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열려

가을을 시작으로 사하구는 동아대와 함께 인문학 강좌를 열렸다. 9월 5일부터 개강한 「낙동인문열전」이다. 인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대학교가 낙동강 연안의 세 개구(사하구, 사상구, 북구)의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이다. 인문도시로서의 지역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이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인문자산과 사하지역의 특징, 낙동강 하구의 옛사람과 무덤에 담긴 이야기, 낙동 초입 지역의 불교문화, 토착사상과 통하다, 낙동강 하구의 숨은 이야기, 다대 소리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 내년 4월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낙동인문열전」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우리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며 문화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 강좌였다. 산림교육전문가인 조미용(64세)씨는 낙동강 에코 센터에 자원봉사 신청을 했는데 낙동강의 전반적인 문화를 미리 숙지하기 위해 이 강의를 듣는다고 했다. 조미용 씨는 사람의 유골을 문화와 접목시킨 강의가 인상적이었으며, '낙동강' 하면 절새에 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비해 본 강의는 문화와 결부되니까 빨리 이해가 되고 사하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생긴다면 만족감을 드러냈다. 류혜경(43세)씨는 "그동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이며 역사를 모르고 다녔는데 이번 강의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각 교수님들마다 색깔이 다른 강의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다음 강의도 기대된다."며 수줍게 말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이 강좌를 통해 사하구 주민들에게 낙동강을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는 사하구의 아름다운 지형이나, 오래된 회화나무 하나도 의미 깊게 다가올 것 같다. 더불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의 : 평생학습과 220-4802

**천종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tagore0308@hanmail.net

## 쉼터로 사랑방으로 영화관으로 주민들의 문화공간 두송생활문화센터

"나한테는 이곳이 쉼터예요. 사랑방 갤러리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면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들 때가 너무나 행복해요" 두송생활문화센터를 매일 방문하는 이도연(83세) 씨의 이야기다. 두송 생활문화센터는 다대4지구 도개공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문화예술공간이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복욕탕건물을 새롭게 꾸민 문화 공간이다. 건물지하에는 다목적홀, 음악실, 공작실이 있다. 다목적홀에는 영화상영, 공연, 강연이 펼쳐진다.

1층에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과 전시를 위한 사랑방 갤러리가 있다.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카페 같은 느낌이다.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강의실이 있다. 다목적홀, 갤러리, 프로그램실, 음악실은 3시간을 기준으로 만원에서 오천원으로 저렴하게 대관도 가능하다.

다목적홀은 매주 두 번 극장이 된다. 수요일에는 어린이 영화를 상영하고 금요일에는 일반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고전영화를 상영할 때는 추억이 생각나 눈물 흘리는 관객도 있고 매주 영화를 챙겨 보러 오는 마니아들도 생겼다. 홍철영(49세) 센터장은 "좋은 영화를 고르는데 신경도 더 쓰게 되고 보람도 느낀다."고 말한다.

두송생활문화센터가 2015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교통이 불편하여 주로 지역주민들만 이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하구 곳곳에서 수강생들이 찾아오고 있다. 현재 하모니카교실, 향기디



자인, 실버 힐링크레이션, 퀼트교실, 노래교실, 수채화반, 어린이 과학교실이 열리고 있다. 수강생 김선미(38세·다대2동) 씨는 "교통은 불편하지만 진짜 마을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며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놓은 사랑방 갤러리가 제일 마음에 들고 함께 배우는 수강생들과도 소통이 잘 되어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수강생들은 일년에 두 번 두송마을 문화축제를 열어 그 동안 배운 것을 발표한다.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은 사랑방 갤러리에 전시한다.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수강생들의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올해 진행된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는 2018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마을 영상물' 제작과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인터뷰집 발간이 있다. 홍철영 센터장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며 더 많은 주민이 찾는 문화사랑방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가을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두송생활문화센터에 가 보길 권한다.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가슴을 울릴 영화 한 편쯤 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 두송생활문화센터 220-4626

**손현아** 평생학습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얼씨구 좋~다!!

## 문화패 '타루'의 '흥' 겪운 이야기

"타루는 한 마디로 '흥'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육영주(50세·다대동) 단장의 모습에서 유쾌함이 묻어난다. 문화패 타루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사물, 풍물 등 타악을 하는 놀이패 동아리이다. 타루는 칠 타打, 다락 루樓를 써서 만든 이름으로, 치고 노는 다락 또는 정자라는 뜻이다. 작은 다락에서 우리끼리 오손도 손 즐겁게 논다는 이미지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자에서 흥겹게 풍악을 울린다는 이미지를 담아 동아리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타루는 2017년 7월에 결성하여 이제 1년 남짓 된 새내기 동아리이다. 그럼에도 2018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물어 보니 육영주 단장은 "운이 좋아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특히 도시철도 당리역에서 했던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 공연이나 다대포 낙조 분수 공연, 산사 음악회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을숙도 문화회관에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2018 전국생활문화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리허설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동아리 결성 당시에는 몇몇 지인이 취미를 공유하고자 시작하였다. 그러다 전통문화의 매력에 뜻을 같이 하는 멤버들이 점점 모여들어 지금은 14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연습은 주로 저녁에 한다. 하연임(49세·덕포동) 씨는 "일하고 와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연습으로 땀을 흘리고 나면 오히려 개운하고 뿐

듯합니다."라고 말했다. 타루의 최고 연장자인 여정숙(71세·당리동) 씨는 사하 사랑채노인복지관 소속의 풍물팀인 초록 동아리에서도 활동 중이다. "초록 동아리에서 사하구 내 여러 요양병원으로 자원봉사 공연을 다닙니다. 여기에 더해 타루에서는 부족한 기량을 더욱 깊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다. 연세에 비해 건강하고 체활한 모습은 타루의 흥겨운 분위기 덕분인 것 같았다.

10월 3일 시민공원에서의 버스킹 준비에 한창인 연습실에서는 타루에 들어온지 두 달여 된 초등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다. 나지환(10세·다대초3) 어린이는 "저는 어린이집에서 4살 때부터 사물놀이를 배웠어요. 상모도 잘 돌릴 수 있어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 학부모 곽보영(37세·다대동) 씨는 "요즘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문화가 서로 다른 부분이 많지만, 타루에서는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배우며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연습하며 사랑과 공경의 마음도 배울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며 즐거워했다.

타루는 지금까지는 다른 동아리와의 합동 공연이 많았으나, 내년에는 단독 공연을 해 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핵가족과 다문화 시대인 요즘,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며 전통문화를 우리 생활에 녹여 내는 타루의 멋진 모습을 기원하며 박수를 보낸다. 얼씨구 좋~다!

김미영 평생학습 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 풍성한 가을맞이 인문학 강좌 '조승연과 함께 하는 인문학 세계 여행' 외 다수

가을을 맞아 인문학 관련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먼저 2018 하반기 고우니 인문학 콘서트가 10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사하구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고우니 인문학 콘서트에는 조승연 작가를 초청하여 '조승연과 함께 하는 인문학 세계 여행' 이란 주제의 강연을 한다. 뉴욕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현재 오마이스쿨 대표강사로 있는 조승연은 '언어천재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과 '비즈니스 인문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고 각종 방송국의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리고 있다.

동아대학교가 주관하는 제13회 인문주간 행사 개막식과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가 10월 29일 오후 6시 20분부터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나는 왜 너를 사랑하지 않는가 : 소설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다'라는 주제의

소설가 천운영 씨의 강연과 소설가 성석제 씨의 '삶의 길을 찾는 두 가지 방법' 이란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TODA 크로스오버 밴드의 낙동송 다시 부르기라는 주제로 공연도 함께 한다.

이 밖에도 인문주간행사로 임지현 서강대 교수의 '화해와 상생의 인문학 :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란 주제의 인문학 콜로키움이 29일 오후 3시 동아대학교에서 열린다. 동아대학교 장선화 강사의 특강 '부산-강제동원의 기억과 치유', 전혜림(한낮 책방 대표) 강사의 특강 '나와 네가 만나 Let's Play!' 등의 청소년 문화강연도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이어진다. 10월의 마지막 주는 인문학과 함께 삶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래본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b>10월 29일(월)</b>	<b>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b>
18:20~21:00	
사하구청 본관 4층 대강당	
문의 동아대 석당학술원 220-1957	

<b>개막식 : 인문주간 선포식</b>
<b>특강 : 천운영(소설가) 제21회 신동엽창작상, 제1회 올해의 예술상 외 다수 수상</b>
<b>성석제(소설가, 시인) 제33회 동인문학상, 제49회 현대문학상 외 다수 수상</b>
<b>공연 : TODA (크로스오버 밴드) '낙동송 다시 부르기'</b>

<b>10월 30일(화)</b>	<b>조승연과 함께하는 인문학 세계여행</b>
19:00~21:00	
사하구청 본관 4층 대강당	
문의 평생학습과 220-4804	

•현)오마이스쿨 대표강사
•뉴욕대학교 경영학 석사
•방송 : KBS (즐거운 책 읽기)
tvN (비밀독서단), (어쩌다 어른)
JTBC (차이나는 클래스)



##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학강의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K-MOOC

평생학습이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학습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고등교육기반 공개강좌 운영서비스이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말한다.

MOOC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기존의 온라인 학습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등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2015년 10월 10개 국내 유수대학 총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500개 이상의 강좌 운영을 목표로 매년 강좌 수를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http://kmooc.kr>)과 앱(휴대폰, 테블릿)에 강좌를 제공하고 2018년 6월 현재 59만7천명의 수강신청수를 기록했다.

MOOC는 일반학습자들에게 개인역량강화를 통한 취업 활용,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학습이력 관리, 각종 자격·시험등 대비를 위한 기초학습으로 활용 할 수 있고 퇴직자와 평생학습자들에게는 창업아이템 발굴 및 정보활용, 개인 취미활동등 자기 개발지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열린 고등교육 체제를 통한 대학교육 혁신"을 비전으로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우리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K-MOOC에 적극 참여해 보기를 권한다.

박강균 평생학습 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